

‘산부인과 위기’ 깊은 우려…법·제도적 안전망 강화해야

전국 모자의료센터협의회·전남대병원 권역 모자의료센터 심포지엄

“내 뒤에 산과 의사 할 사람 있을까”, “오래 버티는 자가 오래 고통받는다”, “오래 당직에 내 놓이 면저 붕괴될 것 같다.”

전국 산부인과 의사들은 17, 18일 광주에서 열린 두 개의 모자의료센터 심포지엄에서 위기감을 집중 토론했다.

〈관련기사 12면〉

고령 산모 증가, 이상 신생아 출생, 분만 의료가 감소 속에 산과 전문의는 줄고 근무 환경은 악화되면서, 이대로면 안전한 분만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공동된 목소리로 나왔다. 또 산과 위기 극복을 위해서 법적·제도적 안전망 강화, 재정적 보상 현실화, 근무 환경 혁신 등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전남대 권역 모자의료센터와 전국 모자의료센터 협의회 주최로 전남대병원 백년홀에서는 ‘전남대 병원 권역 모자의료센터 심포지엄’이 열렸고, 광주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에서 ‘전국 모자의료센터 협의회 심포지엄’이 진행됐다.

18일 모자 의료센터 협의회 심포지엄에서 ‘산과 의사 부족현상의 해결방안’ 주제로 발표한 강원대 병원 나선훈 교수는 2022년 기준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율(35.7%), 다태아 비율(5.8%), 조산율 비율(9.8%) 그리고 최근 10년간 분만 의료기관 변동 현황(2023년 기준 34% 감소)을 제시하며 산과

최근 10년간 분만의료기관 34% ↓

산과 의사 미래 인식 61.4% ‘암울’

고위험 임신 ↑…필수의료체계 구축

재정적 보상·근무 환경 혁신 필요

위기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나 교수는 “고위험 임신 및 이상 신생아의 증가는 산과의 숙련된 전문성과 24시간 대기 체계를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의 산과 의사 부족 현상은 이러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21년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인턴·전공의·임상강사·전임의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1만3029명 중 616명 응답)에서 ‘산부인과 의사의 미래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61.4%가 ‘암울하다’고 답한 것을 예로 들며 예견된 위기였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나 교수는 이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적 보상 현실화, 법적·제도적 안전망 강화, 근무 환경 혁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중 법적·제도적으로는 의료 분쟁 시 국가책임 강화,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정부 100% 공적보상제 도입을 제안했다.



전국 모자의료센터 협의회 심포지엄이 지난 18일 광주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에서 전국 산과 의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고려대의대 조금준 교수는 17일 행사에서 ‘의정 사태 이후 MFICU(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발표에서 의정 갈등 이후 해결책으로 인력 확충의 질적 전환, 수가 개선 및 보상 체계 현실화, 지역 필수의료 지원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필수의료 지원 체계 구축 방안으로 모자보건 특화 병원을 지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경북대·아주대·인제대·강원대·전남대·조선대·계명대·단국대·충남대·가천대 병원, 일산병원·전주예수병원 등 총 20여개 병원의 의사 100여명을 포함, 정부와 의

료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하는 등 국내 의료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

아직에도 이번 심포지엄에서 각 발표자들은 의정 갈등으로 현장에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을 발표하면서 산과 위기와 함께 해결 방안에 대해 열린 토론을 펼쳤다. /글·사진=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전남도, 고흥 동학혁명 이끈 오윤영 접주 묘소 확인

동학농민군 훈련대장으로 활동
도, 중요유적 문화유산지정 검토

전남도는 19일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조사’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지도자였던 오윤영 접주의 묘소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접주란 동학 교단 내 지도자를 뜻한다. 오윤영 접주는 1894년 고흥에서 벌여졌던 동학농민전쟁에서 동학농민군 훈련소 훈련대장으로 참여했다.

고흥은 동학농민전쟁 당시 포두면과 도양읍에 군사훈련장이 설치되는 등 주요 거점 중 한 곳이었다. 고흥 동학농민군들은 순천의 영호도

회소 동학농민군들과 함께 섬진강을 넘어 일본군과 전투를 치렀다. 일본군이 함대까지 동원해 작전을 펼쳤을 정도로 고흥 지역 동학 활동은 활발했다고 전해진다.

오윤영 접주의 묘소는 고흥군 포두면 봉림리 일원에서 확인됐다.

오 접주의 묘소는 신민호 전남도의원(민주·순천6)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제보함으로써 공식 확인됐다.

동학농민운동이 한창이던 시기 고흥지역의 동학세가 강했던 것은 훈련대장이었던 오윤영 접주의 역할이 컸다는 게 연구자들의 설명이다.

오윤영 접주 묘소 묘비에는 그의 또다른 이름 명영(命泳)이 새겨져 있다. 족보에도 명영이라

기록됐으며, 전문가들은 “동학에 대한 탐안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본명을 바꾼 사례가 많이 있었다. 오윤영 접주도 ‘명영’으로 개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연구계에서는 2차 동학농민혁명을 의병의 기원으로 해석해 독립운동의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어, 오윤영 접주의 묘소 발견은 중요한 의미를 갖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오윤영 접주의 묘역 등 중요 유적에 대한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검토하고, 보존관리와 문화 자원으로 활용해 자긍심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 영유아 검진 1차 수검률 전국 평균 밑돌아

8월 기준 전남 52%·광주 61.4%
전국 56.2%…검진기관도 부족

아이가 태어나서 꼭 받아야 하는 영유아 검진을 받은 비율이 전남지역은 3년 연속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가운데 영유아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광주·전남 모두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 같은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담겼다.

자료에 따르면 영유아 1차 검진(생후 14일~35일) 수검률은 올해 8월 기준 광주 61.4%, 전남 52%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기준 전국 평균 수검률은 56.2%였다. 광주는 1차 수검률이 지난해(69%)보다 7.6%포인트 떨어졌고, 전남은 소폭(1.6%포인트) 올랐다.

영유아 검진은 6세 미만(생후 71개월까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해 8차례에 걸쳐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지원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영유아 검진자 100명 가운데 18명이 주·정밀평가 필요 판정을 받아 영유아 검진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남지역 1차 수검률은 지난 2022년 54.7%에서 이듬해 44%로 크게 떨어지면서 3년 연속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영유아 검진 비율이 저조한 것은 높은 병원 문턱도 한몫하고 있다.

올해 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 가운데 영유아 검진(1~8차)을 한 비중은 광주 44.4%(90곳 중 40곳), 전남 46.1%(115곳 중 53곳)에 불과했다.

박희승 의원은 “영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영유아 일반검진의 1차 검진율이 다른 차수에 비해 크게 저조하고,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는 병원을 찾기도 어려운 현실”이라며 “시행기관이 저조한 요인 등을 살피고, 비용 부담도 없는 만큼 기간 내 검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1년8개월만에 ‘의료대란’ 공식 종료…비상진료체계 오늘 해제

보건으로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비상진료체계가 20일 0시 해제됐다.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1년8개월 만에 공식 종료되는 셈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7일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 모집으로 전공의 7984명이 수련에 복귀해 사태 이전의 76.2%를 회복했고, 상급종합·종합병원 진료량은 비상 이전 대비 95%, 응급실은 병상 가동 99.8% 수준이다.

해제에 따라 비상 명목 한시 수가는 종료·조정되고, 효과가 검증된 일부는 본 수가로 전환된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중심으로 기관별 30% 내

에서 유지하며 제도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신설해 지역·필수의료 보장, 소아·분만 공백 해소,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등을 추진한다.

대한의사협회는 “하복 국면을 반영했다”면서도 “무너진 현장 복구에 총력”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특별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배종우(670510-1XXXXXX)
• 최종주소: 광주 서구 삼무로38번길 2(영춘동)
피상속인 망 배종우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특별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5년 단4252호로 신청하여 2025년 8월 21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10월 20일

• 상속인: 1. 백다혜(010424-2XXXXXX)
나주시 다시면 무곡로 780
2. 백다민(030115-1XXXXXX)
광주 북구 용두마을길 13, 101동 1202호
(용두동, 이안광주첨단아파트)
• 신고기간: 2025. 10. 20. ~ 2025. 12. 30.
• 채권신고장소: 상속인 1.백다혜의 주소

의료빌딩 급매 (7층)

병,의원 최고,
대지 848.5㎡ 건물 3,846㎡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과, 약국, 성형외과)

현재 월 3천 1백, 수익률 7%
매 69억 9천. 인수가 17억

군산중심대로, 롯데마트 앞.

주인직 010-3646-8700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권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임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1985
2025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